



오래된 이름 오래된 그리움과 만날 수 있다

순창 구암사(龜巖寺)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새소리 바람소리도 가파르게 들려온다. 산길과 친해질 때 좀 작은 부도밭을 만났다. 낙엽 위에 서있는 이름은 '정관', '설파', '백파.' 아! 그 이름들이 거기 있었다. 돌담 하나 두르지 않은 부도 3기의 부도밭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부도밭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발길을 잇은 '숲'이었다. 도량이 보인다. 구암사다.

주지(지공) 스님이 방문을 연다. 작은 도량. 객이 하나 왔을 뿐인데. 도량은 금방 태가 난다. 법당 하나. 지붕 위로 구름 하나. 오늘은 객이 하나. 찻잔 앞에 앉았다. "스님, 구암사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히 구암사에 계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스님이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침묵이 차 한 잔을 마셨다. 빈 찻잔에 다시 차를 채운 스님은 먼 시선 끝에다 말을 붙였다. "뭘, 갈 곳이 라는 게, 살 곳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요..."

구암사는 고창 선운사의 말사로 623년(백제 무왕 24) 승제 스님

이 창건했다. 1392년(조선 태조 1)에 구곡 스님과 각운 스님이 중창했고, 태종 때 구암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세가 점점 번창했으나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됐다. 구암사가 사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영조 때 설파 스님과 상인 스님이 머물면서부터다. 백파·정관·설두·유형·설유·처명·학명 그리고 석전과 운기 스님까지. 구암사는 인재로 넘치는 도량이였다. 특히 석전(박학영) 스님은 출가와 재가를 아울러 많은 인재를 길렀다. 이 광수 최남선 신석정 조지훈 서경보 청담 그리고 운허까지. 종교를 떠나 한 시대의 지성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도량은 다시 소실됐다. 1973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침묵 사이를 오가던 스님의 이야기가 어느새 설파에서 시작해서 운허까지, '구암사'를 쓰고 있었다. 스님의 인간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구암사와 스승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다.

인재로 넘쳐나고 살림도 지금 같지 않았던 도량은 객이 하나만 들어도 표시가 나는 작은 도량이 되어 있었다. 찻잔을 비운 스님은

방을 나와 마당을 거닐었다. 뒷마루에 앉은 객은 마당을 걷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석전도 만나고 추사와 청담, 운허까지 만난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만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그리움과도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말없이 마당을 걷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잊혀진 구암사를 볼 수 있었고, 스님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도량 끝에 선 스님은 부도밭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과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구암사에 가볼 일이다. 도량 끝에 선 스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래된 이름과 훨씬 더 오래된 그리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림과 부르고 싶은 이름과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산길을 내려간다. 다시 만난 부도의 이름은 이제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침묵이 차를 마시듯 누군가의 그리움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 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방의식, 지장불공, 관음의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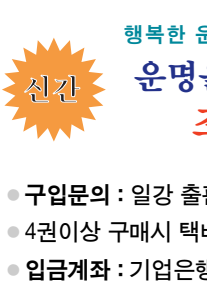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편히 기다리면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임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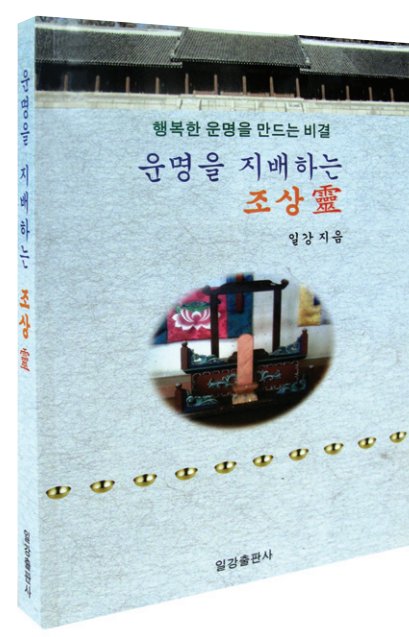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중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